

《공산당선언》 낸 회사원 철학자 강유원

“젊은이들이여, 고전을 두려워하지 말라”

‘회사원 철학자’로 유명한 강유원 박사는 “인터뷰하는 것이 쑥스러워 미치겠다”더니 책 이야기가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청산유수였다. 자신의 표현처럼 “몇 권의 책을 쓰고 번역했던” 그가 최근 젊은 세대를 위한 마르크스 입문서인 《공산당선언》을 선보였다.

강 박사는 1848년 마르크스가 《공산당선언》을 통해, 당시의 세계 자본주의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영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명하고 있는 만큼, 자신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고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우리 사회의 화두인 과학과 생명, 가치 다시 말하면 자연과학과 생명공학, 윤리학이 사회 속에서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 데 《공산당선언》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마르크스는 ‘뜰뜰한 놈’이죠. 스물아홉 살에 이미 엄밀한 사회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나름의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 있었으니까요. 단순한 학자에 그치지 않고 현실을 인식한 지식인으로 자라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 박사는 칼 마르크스의 생애와 사상에 책의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마르크스라는 개인과 그의 시대 사이의 상호작용을 파악해야만 《공산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첫 단추, 《공산당선언》

‘젊은 세대를 위한 마르크스 입문서’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공산당선언》은, 텍스트도 간결할 뿐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익히 알려진 만화가 정훈이 씨의 그림을 담고 있어 책의 행간을 읽는 데 도움을 준다.

강 박사는 “한국에서 ‘악마’ 혹은 ‘괴수’ 쪽으로 간주되는 사람의 책을, 읽은 사람도 많겠지만 《공산당선언》이 처음인 것은 물론 마르크스라는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많은 것이 우리 현실”이라면서 “다양한 연령과 경험 등을 생각해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최소한의 출발점을 삼기 위해 쓴 책”이라고 설명한다.

당선언》이 탄생 배경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고, 또한 마르크스가 자신의 시대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내 개인적인 막연한 추측”이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마르크스가 이미 그때 자본주의의 역동성에 매우 놀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자본주의가 완숙기에 이른 상태였고, 부르주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에 차 있었다는 것이 마르크스 시대에 대한 강유원의 평가이다.

회사원 철학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

강유원의 《공산당선언》은 애초에 대학 강의에서 출발

했다. 야간에 개설된 과목이었기 때문에 직장과 야간대학을 함께 다니면서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청강생들도 간간이 눈에 띄었다. 한 학기 동안 두꺼운 교재 품을 들고 다닐 바에야 얇은 책이라도 한 권 다 읽도록 해보자고 선택한 것이 《공산당선언》이었고, 그 자신의 표현처럼 “인터넷에서 PDF 파일로 떠돌 것을 좋은 출판사 만나 한 권의 책으로 출간” 된 것이다. 그러나 강의와 책은 조금 차이를 보인다. 강의의 대상이 대학생들이었다면, 책이 목표로 삼은 독자들은 직장인들이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생들은, 특히 요즘 같은 취업난 속에서 대학생들은 절대 약자예요. 목전의 공부에 급급해서 영어, 자격증 공부가 전부처럼 되었잖아요. 근데 직장인들은 좀 달라요. ‘내가 약자인데 하지만 너희들 약점도 좀 알지’ 하는 마음이 있고, 대학 다닐 때의 패기도 남아 있어서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가 있거든요.”

더불어 그는 자신이 회사원 철학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박사 빨리 받으면 교수 빨리 되는 줄 알고 서른하나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그가 교수가 되기를 포기한 것은, 한 곳에 눌러앉아 있으면 ‘반성적 사유’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박사과정을 밟는 동안 헤겔 원전 강독을 하며 파트타임으로 인터넷 기획일을 했다. 학교에서는 순수학문을 배우고, 직장에서는 실물경제를 배운 것이다. 서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반성적 사유’를 배운 시간들이다. 문자로만 배우는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자각하기 위해 그는 지금도 회사원 철학자로 남아있다. 그래서 여직 초빙하는 대학이 없는지도 모를 일이다.

고전, 자기를 가라앉히는 마음의 약

그가 《공산당선언》을 택한 또 하나의 이유는, 고전 읽는 방법을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어서였다. 고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렵다, 이거 읽다가 세월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한다. 그럴 바엔 자기계발서 하나 딱딱 읽는 것이 신상에 이로울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도 갖게 한

다.

그러나 강유원은 “고전 읽다가 세월 가도 절대 손해나지 않는다”고 장담한다. 독일어 간신히 하는 사람들과 헤겔의 《정신 현상학》을 강독하고 있는데 40주 동안 나간 진도는 겨우 20페이지. 그래도 함께 한 사람들은 ‘아! 책이란 이런 거구나’ ‘고전은 이렇게 읽어야 마땅하구나’ 하고 이구동성을 말한다.

“고전은 자기를 가라앉히는 방법을 배우는 책이에요. 나도 서점 가서 자기계발서 많이 봐요. 하지만 자기와 세상을 돌이켜 보는 방법은 배울 수 없으니 도리 없죠. 고전을 읽는 수밖에.”

그래서 그는 고전을 읽으려고 할 때 “텍스트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조언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는, 어릴 때부터 책 사주고 ‘다 읽었어’ ‘독후감은?’ 이라고 다그치는 것이다. 책 사줬으면 거기서 그만, “안 읽는다고 뒤통하면 책 사주나마나”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수험서 보듯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책이란 모름지기, 아무 데나 펴보고, 즐기고, 지혜를 얻고, 쉬기 읽는 것이다. 한번 훑어보고, 여러 번 들쳐보다보면 꼼꼼히 읽어야 할 기회는 오게 마련이다. 그때 집중해서 읽어야 한다. 그래야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할 수 있다.

그는 중3 아들에게 한달에 용돈 대신 “보고 싶은 책 네 마음대로 골라보라”는 말과 함께 문화상품권 5만 원을 준다고 한다. 때론 그의 서재에 꽂혀 있는 책을 사올 때도 있고, 기대와는 전혀 다른 책을 선택할 때도 있다. 그는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야 책 고르는 안목이 넓어지기 때문에 한 번도 제지하지 않는단다. 아들과 친구처럼 책을 주제로 담론을 나눈다는 강유원의 마지막 말이 인상적이다.

“어차피 세상에 나왔으니 학자인 체하지 않고 현실에 뿌리박고 세상과 교류하고 싶어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는 소리 하지 않고 내 갈 길 가다 보면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한문**

취재_장동석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